

제주사회복지신문

제67호

2013년 5월 2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김수완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치매 환자 5년 새 3배 증가

2011년 31만명...연간 진료비 1조원 육박

치매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5년 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4월 21일 발표한 2006~2011년 치매 진료 기록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000명으로 5년 사이 2.96배 증가했다. 연평균 24.3%씩 치매 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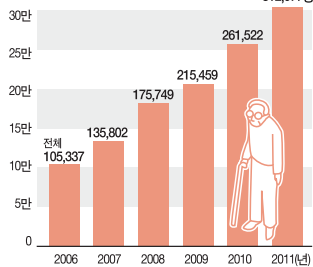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 발생 빈도가 높았다.

2011년 기준 치매 환자 31만2077명 중 65세 이상은 92.6%인 28만8987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치매 진료 환자 숫자도 2006년 1923명에서 2011년 5120명으로 2.7배 늘었다. 85세 이상의 치매 진료 환자는 이 기간에 1만7165명에서 7만4983명으로 4.37배 많아졌다.

치매로 인한 총 진료비도 2006년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4.87배 늘었다.

치매 진료환자 증가 추이



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수와 관련 진료비는 각각 3.1배, 5배로 증가했다. 노인 환자 중에서도 90세 이상의 환자 진료비가 각각 4.86배, 8.45배로 크게 늘었고, 85~89세도 4.15배, 7.31배로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2011년 기준 전체 치매 진료비 중 74.7%가 요양병원에서 지출됐다.

치매 환자 진료비 급증 현상은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과거에 비해 초기 단계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호자의 인식 변화로 이전에는 대소변을 못가릴 정도가 돼야 병원에 왔지만, 현재는 초기에 인지기능의 변화를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치매는 초기에 기억장애로 시작해 이듬해기 장애, 시공간 지각 장애, 실행증,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차례로 보이는 질환이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 교수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 운동, 금연 및 절주,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두뇌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



▲4월 2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식전공연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고은실)는 4월 2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우근민 제주시지사, 도의원,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관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어울림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강동식씨(60·제주시 오라1동)가 장한장애인대상을, 강정선씨

(47·여·제주시 한림읍 월령리)가 장애인어바이대상을, 박생규씨(76·제주시 외도1동)가 장애인도우미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난 1981년 사고로 양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 지체장애1급 판정을 받은 강동식씨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강동식씨, 장한장애인대상 수상

는 중증 장애인 자조모임 ‘모닥불’을 만들어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정선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2명을 키우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들들의 자립심을 키우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

박생규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오른팔과 다리가 불편한 데도 지난 13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100여권을 제작하는 일에 봉사했다.

어울림마당에서는 댄스, 노래, 마술, 발라댄스 등 축하공연과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고은실 회장은 4월 18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 회장은 지체장애(1급)를 극복하고 여성장애인 인권 증진과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헌신했으며, 현재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회장, 다솜발달장애인자립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긴급지원 ‘위기의가장’ 급증
제주사회복지 1호시설 탐방(3)

■ 사회복지소식 4·5면
“도민 22% 알코올 고위험군”
홀로서기 ‘체할출’ 운영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기고

■ 특집 7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

■ 기획 8면
1대의 시선으로 바야본제주(1)



5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6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t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 설 · 단 체 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인 제3차 신규교육	10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비 10만원	5월 27일 ~ 6월 4일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2층	702-0295~6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 기초교육	6일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5월 7일~ 28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725-8015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의정모니터링단원 모집	각 상임위 및 행정사무감사 등 모니터링	장애인 10명 내외 모집	751-8097
제주가족사랑상담소	한국형에니어그램 워크숍	5월 16일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5월 26 ~ 27일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	726-3277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랑의 사진 공모전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5월 7일까지 신청 접수	747-327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프로포절 작성실무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기획과 실행 등	이론 : 5월 8일, 실무 : 5월 9일 사회복지협의회 2층	702-3784
	지역아동센터 중사자들을 위한 아동상담기법	위기가동 감별 및 상담기법 등	5월 24일 사회복지협의회 2층	702-3784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정’ 급증

제주시, 올 들어 60가구 7400여만원 지원

사업부도·실직 등으로 생계·의료비 요청

최근 실직과 사업부도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는 위기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위기가정 60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744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가구 2200만원)에 비해 가구 수는 32가구, 지원금은 52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긴급지원 가구 수와 지원금은 의료비 49가구 6730만원, 생계비 8가구 600여만원, 주

거비 2가구 38만원, 장례 보조비 1가구 75만원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저소득층 가구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 부도, 실직 등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 심장 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또 긴급지원 대상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로 완화된 점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 복지위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층을

연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 실직 또는 질병과 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의료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한도는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04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주거비는 37만원, 장제비는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고 싶으면 국번 없이 129 또는 제주시 주민 생활지원과(728-2473)로 연락하면 된다.



사랑의 ‘나눔장터’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고정렬)은 4월 18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정검다리·나눔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눔장터 수익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제주 공공형 어린이집 38개소 확충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38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평가인증 접수, 1급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종합 판단해 5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은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모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정원 규모에 따라 월 96만원에서 870만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 받는다.

정부지원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를 적게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면 4600여명의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제주도는 5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접수, 급식 현황,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 강사 인적사항, 회계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서비스·급여신청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건수는 2만 50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97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초·중·고 교육비 9766건,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 학비 1만2417건, 한부모가족 355건, 기초노령연금 1260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포함) 337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917건 등이다.

전년 1분기 대비 증가율은 초·중·고 교육비 100%,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48.6%, 한부모가족 및 기초노령연금 27.5%, 장애인연금은 24.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는 1.7%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초·중·고 교육비 업무가 교육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와 올해 새로 통계에 잡히는데다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전면 무상지원 시행, 한부모가족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애판정체계 개편 추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검토… ‘완전 폐지’ 주장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판정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정책에 따르면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6등급인 장애 판정체계는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분된 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 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하지만 장애계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신체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장애인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격심사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등급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중증장애인이 화재·가스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기, 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희망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공무원노조

푸드마켓에 쌀 기탁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행복한 변화,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란 슬로건을 내건 제4대 제주도공무원노조는 4월 5일 출범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쌀 240kg은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120kg은 ‘주사랑요양원’에 각각 기부했다.

이어 4월 21일에는 주사랑요양원을 찾아 건물을 청소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후원금 152만원을 기탁했다.

고재완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도, 사회복지공무원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변경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0명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8명이던 선발인원을 18명으로 늘려 채용한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발하는 인력을 현재 1명뿐인 읍·면·동 사회복지직 업무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육아휴직,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지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올해 4개 분과사업 확정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공동위원장 김재봉, 이상규)는 4월 16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4개 분과사업을 심의·확정했다.

분과별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분과는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마술교육’, 장애인복지분과는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제고할 교육’, 아동청소년 분과는 ‘서귀포지역 아동, 청소년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가족분과는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인권 통합사업’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분과사업에는 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지역자원 발굴과 분과사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

(3)제주원광요양원·아가의집

노인 의료복지시설 1호 ‘제주원광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1호 ‘아가의 집’

“가난하고 병든 노인을 내 부모처럼 모셔”



‘받는다’, ‘살핀다’, ‘배운다’. 제주 원광요양원의 원훈이다. 한라산 중턱인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자리잡은 제주원광요양원은 1988년 4월 문을 연 제주지역 최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모셔라’라는 원훈과 교리에 입각해 부모고(報恩)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난하고 병든고 외롭고 고 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섰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않았다.

“1988년 4월 1일 시설허가를 받고 개원했는데 이 좋은 집에 노인이 입소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

장에 올려놓는 접착제를 로션인 줄 알고 바르는 노인, 치매증상이 너무 심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수발하기조차 힘든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강 원장은 “이 분들이 비록 육신은 다 망가지고 정신은 온전하지 못해도 송고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원광요양원의 운영주체는 2005년 2월 사회복지법인 산동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섬나기로 바뀌었다. ‘섬나기’는 섬기고 나누고 기르자는 뜻이다.

설립 초기 50명이던 입소자 정원

1988년 4월 한라산 중턱에 도내 최초의 요양원개원 “개원했는데 입소자는 없고”...순탄치 않았던 여정

졌다. 당시 전국 어느 노인시설보다 시설이 좋다는 평가와 자부심으로 조성된 본원에 우리의 손길을 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가족이 모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강혜신 제주원광요양원장이 1998년 원광요양원 10주년 기념 특집호에 쓴 회고록의 한 대목이다.

개원 초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초대 원장인 박은석 교무는 어느날 아침, 한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중 노인이 갑작스레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그만 척추를 다쳐 6개월간 임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것은 물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공존 생활하는 탓에는 사건·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

도메지며 장판 등을 죄다 뜯어먹는 노인부터 하루 종일 잔도 자지 않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노인, 신박

은 현재 200명으로 늘었고 직원도 117명으로 증가했다. 도내 요양원 중 입소자가 가장 많다. 입소 대기자도 많아 평균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원광요양원은 1997년 1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요양원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야간보호사업과 방문요양 서비스사업을 시행했다.

강 원장은 “노년기는 인생에 있어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내 집처럼 항상 편안하고 오손도손 훈훈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799-3999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



사회복지법인 혜정원이 운영하는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이 문을 연 것은 1988년 5월 19일, 재일교포 3세인 김혜정씨(67·여)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마케팅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할머니 고향인 제주에 들어와 설립한 제주지역 최초의 장애인생활시설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1980년대 중반 제주에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방치된 장애인들을 목격한 후 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 장애인생활시설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987년 자신이 모아둔 자비를 털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4000여평의 부지를 사고 아가의 집

장애아동만 입소가 가능했지만 그 후 나이 제한을 만 64세까지 대폭 완화했다. 이 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18세가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입소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대부분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이 곳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재활의지를 다지고 자립심을 키우고 있다.

언어·인지·미술치료, 직업훈련, 정보화교육을 비롯해 스스로 용돈을 관리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돈 및 금전관리 교육도 이뤄진다.

아가의 집은 1990년 3월 제주영

재일교포 김혜정씨가 자비 털어 1988년 5월 설립 지적·자폐성 장애인 40명 생활하며 자립능력 키워

을 지었다.

설립 초창기 멤버로 아가의 집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강정인 사무국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설립 초기에는 원생이 10명이 채 안됐어요. 직원 수도 적어 평일에는 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어요. 주말을 제외하곤 집에 갈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이 곳이 사실상 집이나 마찬가지였습시다.”

초대 원장을 맡아 개원 준비에 열정을 쏟았던 김규원씨는 아가의 집 개원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아가의 집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일상적인 보호기능은 물론 재활치료와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아가의 집 입소자는 40명.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다. 개원 이후 2006년까지는 만 18세 미만

지학교 부설 특수학급을 인가 받은 뒤 지난해 2월까지 20여년간 운영해 왔다.

2000년 12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립해 30명의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있다. 도자기, 공예품, 상패, 현수막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박두현 아가의 집 원장은 “아가의 집에는 행동이 힘들고 불편과 제약은 따르지만 미움도 욕심도 없고 남을 원망할 줄도 모르는 천사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천사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이라고 말했다. 문의 =783-9000





“제주도민 22% 알코올 고위험군”

강지언 센터장, 성인 507명 음주실태 조사 결과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열려...자살예방 강조

제주도민 5명 중 1명꼴로 알코올 고위험음주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언 제주알코올상담센터장이 4월 10일 '201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실태, 욕구 및 음주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동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1%인 112명이 알코올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명(5.9%)은 알코올 사용장애(남용·의존)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군 유병률이 높았다. 또 연령별 고위험군 유병률

은 20~29세 24.5%, 30~39세 17.8%, 40~49세 23.8%, 50~59세 21.0%, 60~69세 15.4% 등으로 20대가 가장 높았다.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고, 정신적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92.8%가 알코올상담센터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언 센터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젊은층에서, 고학력일수록 고위험음주군 유



▲201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0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코올상담센터 인지도가 매우 낮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혁 제주시정신건강센터장은 ‘제주지역 우울장애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통

해 “유력 우울증 유병률은 40대 연령층에서 낮은 반면 70대 이상은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확실한 우울증 유병률 역시 70대에서 높았고 우울증 고위험군 유병률도 70대가 43.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한국필립모리스 차량기증



한국필립모리스(주)(대표이사 정일우)는 4월 15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박상현)을 방문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이용할 스타렉스 1대를 기증했다.

이날 차량 기증식에는 김병철 전무 등 한국필립모리스(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스타렉스 지원으로 장애인인을 위한 원활한 이동 수단이 확보돼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장애인가족 협력지원 협약



제주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3월 28일 제주장애인부모회교육장에서 제주지역 내 장애인 가족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11개 유관기관과 ‘위기 장애인가족 협력지원 네트워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 소년과, 제주소방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영지학교,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한마음병원,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이 참여했다.

일배움터 “꽃바구니 팝니다”



일배움터(원장 최영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판매한다.

주문 방법은 전화(723-9103~4) 또는 인터넷 쇼핑몰(www.ilbaeumteo.co.kr)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꽃바구니 가격은 1만원, 3만원, 5만원이다.

소/식/마/당

노인행복지킴이단 교통안전교육 체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최근 (사)제주안전재생활실천연합회와 연계해 노인행복지킴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차량사각지대 대비하기 등 직접 교통안전 체험을 했다.

장애인부모회, 부모아카데미네일아트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4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부모아카데미 네일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손톱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기분을 전환하고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청 불자회, 태고원서 봉사활동



제주시청 불자회(회장 강철수)는 4월 20일 제주태고원을 찾아 생태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자회 회원들은 이날 고추, 가지, 오이, 참외 등 9종류의 묘종을 구입해 태고원 텃밭에 심었다. 한편 제주시청 불자회는 봄채소와 가을채소를 재배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004지역사회봉사단, 흥익아동센터서 도배봉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 소속 1004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도배봉사단은 4월 13~14일 흥익아동복지센터를 찾아 도배봉사활동을 펼쳤다.

도배봉사단은 흥익아동복지센터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생활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물 개·보수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문 도배인력과 도배재료를 지원했다.

제장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4월 13일 제주유나이티드 FC와 연계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축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경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 시작을 앞두고 축구선수단 입장시 복지관 이용 아동 22명과 선수 22명이 함께 등장에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노제노인요양가정, 꽃구경 나들이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월 4일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림공원에 꽃구경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이날 아름답게 핀 각종 각색의 봄꽃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월 10일에는 세계평화포럼 주최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제공해 맛있는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위풍당당 홀로서기' 체험홈 운영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 성인지적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체험홈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4월 8~17일 서귀포시 일원에서 9박10일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성인지적(발달)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체험홈 2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위풍당당 홀로서기, 우리

가 만드는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위생관리, 가사생활관리 등 기본생활 기술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공공기관 및 편의점 이용 등 사회자립생활 등으로 짜여져 운영됐다.

또 메뉴 정하기, 의견조율

하기 등 자기결정권 향상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성인지적 장애인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한 참가자는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체험이었다”며 “앞으로는 혼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홈은 자립생활 육구는 있으나 자립생활의 기회가 적은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 거주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체험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암재활원, 가족과 함께 올레 걷기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4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 1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올레길 트레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들은 부모 손을 잡고 올레 10코스인 송악산 인근을 걸으며 올레 코스를 완주했다.

시각장애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끝까지 완주,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올레체험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진행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송실사이버대와 MOU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지난 16일 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송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헌수)와 산학 연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습지도 연계, 학술정보·자료 상호 교환, 공동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애덕의집, 봄나들이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은 4월 18일 재가장애인과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노리매공원’을 다녀왔다.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회장 강태원)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재가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제주애덕의집 이용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 연금공단과 상호 협력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은 4월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제주지부(지부장 윤종기)와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지원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과 관련 정보 교류, 인력 및 자원 활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원단은 퇴직공무원의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 제주지원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이정필 단장은 “퇴직공무원의 오랜 공직생활 노하우는 지



역아동센터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지원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를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주 4·3 영화 ‘지슬’ 관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가 운영하는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4월 9~17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4·3을 주제로 한 영화 ‘지슬’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을 통해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청, 제주시니어클럽, 하귀원광재가노인복지센



터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를 찾아 ‘지슬’을 감상하며 제주 4·3 당시 가슴 아픈 추억을 떠올렸다.

어르신들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4·3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4월 식품기탁자

▲강경찬씨=무농약돌미나리 5kg ▲김경생씨=유기농 무 67개 ▲안신희씨=시금치 70kg ▲금강축산유통=육류 197kg ▲김치원=김치 40kg ▲빵따아모=빵 53봉 ▲삼다유통=삼다수(2LX6) 300팩 ▲서문식품=두부 424모 ▲신농영농조합=장아찌 80kg, 무말랭이 40kg ▲신성상사=국물용멸치(1.5kg) 70상자 ▲웰빙유통=산머루음료(180mlX12입) 28상자 ▲이든이네=멸치 3kg ▲제주보리촌=보리빵 123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쌀 240kg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돈가스 180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X6) 15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540봉 ▲무기명=사발면 176개

2013 리더아카데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4월 25~26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13 리더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확대와 기관·단체 교육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하고 자원



봉사 지도자들의 상호 인프라를 구축해 제주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칼럼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고 보 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된 1964년 전인 1963년도 출생으로, 이들은 712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어 2018년 고령사회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주된 연령층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과 더불어 고학력 시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1955년 66달러에서 2007년 2만 달러로 향상시켜 빈곤한 농업기반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시킨

경제성장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요구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0)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측면에서 이들을 위기 집단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심각한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은퇴 준비가 미흡하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및 안전망체계가 불안정하며 가족으로부터 이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건강보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반 정도가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 세대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구조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맞물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이들의 노후 빈곤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의 부정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60세 의무화가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60세 정년보장을 초점을 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현실적 대처 방안 모색해야

그러나 정년보장을 연장하는 것보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재계와 노동계 역시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더불어,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사회적 자본화가 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사회의 빈곤 악순환이 우리사회의 빈곤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대가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와 자기발전을 병행하는 사회통합의 공통분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론

비범한 사람들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그의 연주를 듣기 전에는 하모니카가 그토록 다채로운 음색을 가진 악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만만하고 소박하게만 여겨지던 하모니카 소리가 재즈 하모니스트(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의 들숨과 날

숨을 통해 처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음악이 된 것이다. 전제덕은 생후 보름 만에 찾아온 원인 모를 열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안마시술 등으로 사회생활을 잠시 한 적도 있으나 녹록하지는 않았다. 특수학교 시절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사물놀이에서 장구를 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앞이 보이는 사람들과도 앙상블을 이룰 수 있다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티레망(Toots Thielemans)의 하모니카 발라드를 듣고 감동한 전제덕은 하모니카를 독학으로 터득한다. 그가 하모니카를 처음 잡았을 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하모니카가 한 달 만에 고장이 나고, CD 한 장을 천 번 이상 듣다 보니 CD가 망가져 더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음악계에 잘 알려져 있다.

비범성은 의지와 끈기의 산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의 업적을 이룬 경우를 두고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제덕은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말을 싫어한다. 장애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불편한 것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음악을 대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음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절박함이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세계적으로도 재즈하모니카 연주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문데, 전제덕은 현재 국내 유일의 재즈하모니카 연주자라고 한다.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비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범성은 우연히 생겨난 자신의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끈기 있는 노력이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하버드대의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교수는 「비범성의 발견(Extraordinary Minds)」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비범한 사람들은 첫째, 경험한 사건들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셋째,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역경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며 패배를 기회로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당신은 비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천으로 만개한 꽃, 바람에 날려 한층 더 화사한 봄이다. 올 봄이 작년 봄과 똑같지 않듯, 우리의 하루하루도 우리 인생에서 각기 다른 매 순간의 연속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어쩌면 그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안의 비범함의 잠재성을 믿어보자.

기고

제2차 자원봉사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의 방향



고 태 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최근 세계는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라 자원봉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체계화를 국가적과제로 채택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2008~2012)은 5개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를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2차 5개년 (2013~2017)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시기다.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자

원봉사진흥을 위해 민과 관이 향후 5년간 수행해야 할 과제를 계획하는 것이다. 국가기본계획은 일개 부처만의 계획 아니라, 한국의 자원봉사진흥을 위해서 민·관이 추진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것이다.

국가기본계획 결과물이 생산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속에 과정의 중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정부(안행부)와 전문가중심의 계획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참여촉진, 활동지원 인프라의 효율화 증진, 활동 관리 및 핵심인력 양성, 활동 연구기반 조성, 활동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기반을 두었다고 평가되나 기본계획이 만족해지려면 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특히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는 현장조직들(자원봉사단체)과 자

원봉사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의식들 및 제인들을 파악하는 일련의 참여적 과정과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매 단계부터, 즉 자원봉사 현황과 문제 진단 국가계획 비전과 목표 수립 정책영역과 세부과제로 제1차 기본계획 연속선상 보완, 기본계획 이행 보장, 생활 속의 문화로 정착, 인프라 구축보다는 사람을 육성, 실적 관리보다 활동을 관리,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민·관 협력의 정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근사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겠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장치 필요하며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기본의 방향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해 재정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 주최로 4월 2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서 방청객들이 주제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인권위 진정 10배 늘었지만 사회적 변화에는 한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명문화 등 제주장애인인권조례 개정해야”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 주최로 4월 2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서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조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했으나 이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해 사회적 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법률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는 점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관련 법령의 정비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요소”라며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축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적·발달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편의가 지원돼야 하지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 및 지침조차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5230건으로 월평균 92.2건에 이른다. 이는 관련 법률 시행 이

전의 월 평균 8.5건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차별 항목이 3322건(63.5%)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 접근을 비롯해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이 이 항목에 모두 포함돼 있는데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이 구체적 차별 사례다.

이어 괴롭힘 539건(10.3%), 채용시 차별 등 고용차별 338건(6.5%), 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 교육차별 323건(6.2%)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는 2385건을 조사해 291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이중 262건이 이행됐다. 조사대상 중 1334건은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합의 종결됐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시설의 폭력행위 등과 관련해 13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자로 나선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2011년 9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상임대표는 “현행 장애인인권조례는 당초 조례의 핵심 내용이었던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할 가칭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조항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데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가칭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고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전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단순 상담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과 ‘권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법조인,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부의하고 조사권 발동을 명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복지안전위원회)은 토론회서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에 대한 기본조

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며 “단순히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 실현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장애인이 역사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구조적 차별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조례의 성격을 재규정하고 조례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기탁 변호사는 토론회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맞닥뜨리는 공간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

‘두맹이 골목’ / 몽생이기자단 제작영상물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영상제작 동아리 ‘몽생이기자단’이 제주 곳곳을 누비며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 이번호부터 연재합니다. 이 영상물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찍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두맹이 골목에서 우리네 엄마아빠를 만나다”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제주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가득한 제주는 가히 보물섬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물은 꼭 차를 타고 가서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곁에도 숨겨져 있는데요,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두맹이 골목을 찾아가면 색다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봄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두맹이 골목을 걷다보면 이곳에서 우리네 엄마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여드름 가득한 우리네 부모님들은 10대의 모습으로 골목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꽃과 나비가 맘껏 날아다니는 이 골목에서 말타기, 줄넘기, 함께 도란도란 모여 책읽기, 그리고 곳곳 재미있는 만화캐릭터까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



▲영상제작동아리인 ‘몽생이기자단’이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두맹이골목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

습니다.

스마트폰, PC방, 학원에서 방과후를 보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두맹이 골목,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별다른 기계나 돈이 없어도 웃음기득 머금으며 우리보다 더 해맑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여분. 그 20여분동안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우리삶의

활력소가 될것이라 자신합니다. 봄향기 따뜻한 5월, 어른들은 옛 추억을,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10대 시절과 만날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유일한 제주도의 숨은 보물인 ‘두맹이 골목’으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물보기 ⇒



몽생이(夢生里)기자단은

오현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영상제작 동아리로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사업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생이(夢生里)는 ‘조랑밭’을 뜻하는 제주방언이기도 하지만 ‘꿈을 낳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소년 통합미디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사회복지協 영상위-오현중-중앙여중 공동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오현중학교(교장 백광익), 제주중앙여자중학교(교장 고영호)는 4월 5일

제주영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형 청소년 통합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 배움

터 교육지원사업인 ‘꿈틀거리는 미나리 프로젝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현중과 제주중앙여중은 학생들로 구성된 영상제작 동아리 ‘몽생이기자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제주영상위원회는 몽생이기자단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교육과 함께 각종 영상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매월 발행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을 통해 몽생이기자단이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 연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영상미디어교육과 지면 기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15일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로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사회복지복지협의회는 올해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공익법무관)가 상주하면서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법 교육, 법률 정보, 소송구조연계, 분쟁 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 방법 안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률 몰라 고통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에서 방문상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702-3383)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전화(702-3782)로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에서 ‘제주사회복지신문’에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와 지면에 실습니다. <편집자주>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을 소개합니다”

가족과 함께 7년째 동제주복지관 찾아 정기봉사



지난 2006년 11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나눔문화 확산의 의미를 넘어 은행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을 찾기 위해 아침일찍부터 가족단위로 승용차를 나눠 타서 이동하고 봉사자 조끼와 장갑을 착용하고 복지관 화단 김매기와 배란다 및 난간을 페인트칠하고 나면 함께 따라온 아들과 딸들이 자기도 하겠다며 때를 쓰는 광경이 연출되곤 한다.

자녀들은 초기 봉사활동 당시에는 많이 서툴러 도움이 되기보다는 성인봉사자들의 수습거리를 만들곤 했지만 부모와

함께 참여한지 6년이 지난 지금은 제법 한몫을 하는 청소년 봉사자로서 성장을 했다.

당장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효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직장 동료,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봉사활동의 장을 제공한 결과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정기봉사단체로, 타봉사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도배봉사단을 위해 도배지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나눔의 형태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직장동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찾아와 굿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온 우리은행 자원봉사단의 노고는 일손이 부족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